

상상으로 여는 새로운 미래



각자의 상상을 공유해 혁신 원동력을 만들자는 취지로 시작된 서울아산병원 사내 토크쇼 '상상더하기'는 권혁수 교수(오른쪽)와 장일영 교수(왼쪽)의 남다른 생각에서 시작됐다.

서울아산병원이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의 '2022 세계 최고 병원(World's Best Hospitals)' 평가에서 국내 병원 최초로 30위를 기록했다. 작년 34위에서 4계단 상승하며 세계 의료를 선도하는 병원으로서의 역량을 다시 한번 증명한 것이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2022년 서울아산병원은 글로벌 병원으로의 미래를 그리는 새로운 활동을 시작했다. 알레르기내과 권혁수 교수와 노년내과 장일영 교수가 기획과 진행을 맡은 사내 토크쇼 '상상더하기'다.

지속 가능한 서울아산병원을 위한 혁신 프로젝트

2021년, 알레르기내과 교수인 동시에 기획조정실에서 기획업무를 맡고 있는 권혁수 교수에게 새로운 과제가 생겼다. 서울아산병원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미래상을 그리는 일이다. 처음 권 교수

는 흔히 하는 방식 그대로 교수들이 중심이 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기 위해 뛰어다녔다.

그러다 문득 '교수들만이 아닌 직원들 각각의 필요에서 출발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각 분야 전문가인 직원들에게 각자가 꿈꾸는 서울아산병원의 미래에 대해 묻는다면 혁신의 폭을 한층 넓힐 수 있을 것 같았다.

이내 권 교수는 유튜브 채널을 활용한 사내 토크쇼로 방향을 정하고, 노년내과 장일영 교수에게 함께 할 것을 요청했다. 전공 분야는 물론 노인복지와 신기술, 사회와 문화 현상 등에 걸친 장 교수의 관심과 식견을 눈여겨본 덕분이다. 장 교수 역시 "각자의 상상을 공유하다 보면 뜻밖의 부분들이 모여 혁신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겼다"라며 기꺼이 합류했다. '상상더하기'가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권 교수는 특히 "자칫 현실에 대한 불만으로 비칠 수 있어 조심스



간호의 미래를 다룬 상상더하기 간호사편.



상상더하기 메타버스편에 소개된 메타버스 수술장.

렵지만, 상상을 해야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즐겁게 나섰다. 병원에서 현명한 결정을 해주신 덕분이다”라며 상상더하기의 탄생 취지를 요약했다.

모으고 연결하는 것이 혁신

상상더하기 첫 회가 공개된 것은 올해 1월이지만, 권혁수 교수와 장일영 교수는 2021년 가을부터 준비에 준비를 거듭했다. 게스트를 섭외해 촬영을 진행하고 서울아산병원 메디컬 콘텐츠 센터 담당자와 머리를 맞대고 편집을 했으며, 인트로 화면과 음악 제작에도 적극 참여했다. 동시에 두 사람은 각각 ‘블랙(권 교수)’과 ‘핑크(장 교수)’라는 닉네임도 얻게 됐다.

첫 회가 공개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장 교수는 “실수하면 안 된다는 부담이 컸다”라고 말했고, 권 교수 역시 “문제점을 해결하고 직원들의 요구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보이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었다”라는 소회를 밝혔다. 권 교수와 장 교수는 월 1회, 1시간씩 서울아산병원 의료진과 직원들을 만나왔다. 첫 방송은 간호의 미래를 주제로 메타버스, 인공지능 등 광범위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후 감염과 코로나19, 영상의학의 미래, 메타버스, 환자경험 등 다채로운 주제를 다루며 서울아산병원의 미래 청사진을 차근차근 풀어내고 있다.

권 교수는 “게스트나 대화 주제는 미리 정하기보다 시의적절하게 정하는 편”이라고 한다.

“서울아산병원에는 다양한 전문가와 풍부한 자원이 있습니다. 병원을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것만 해도 각 진료과는 물론 시설, 물류, 교통, 급식 등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각각의 스케일도 크고요. 그러니 각각의 목소리를 모아놓으면 누군가는 전혀 엉뚱한 방식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노인들을 진료하며 치료 외적인 부분의 중요성을 절감해온 장 교

수는 분야별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를 희망한다.

“노인의 특성상 아무리 치료와 약 처방을 잘해도 평소 생활에 적용하기 어려워서 수포로 돌아가는 일이 많아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다른 분야의 기술들을 접하다 보면 언젠가는 안타까움을 해소할 만한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상상더하기가 저뿐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그런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의료의 본질 지키며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

실제로 서울아산병원에서는 의사직부터 일반직까지 9천여 명이 상이 함께 일하고 있다. 이렇듯 큰 규모는 환자에게 최상의 진료를 제공하는 원동력인 동시에 전문화·세분화로 인해 인력 간 교류를 어렵게 하는 문턱이 되기도 한다. 장일영 교수가 상상더하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유다.

“각자의 역량은 뛰어나지만 생각할 기회나 동기를 얻기 힘들다. 다른 분야를 돌아보기 힘들 만큼 바쁘니까요. 하지만 직원 전체가 참여할 때 서울아산병원다운 미래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권혁수 교수는 좀더 큰 틀에서 상상더하기의 지향점을 강조했다. 의료의 본질을 지키며 미래를 선도하는 서울아산병원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향후 거대 자본이 의료 분야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상황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의사와 환자가 손잡고 갈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먼저 시도할수록 의료의 본질을 지키며 앞서가는 병원이 될 텐데요. 서울아산병원이 그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상상더하기가 있으니까요.”  글 최주연